2회 우승 유해란, 슈퍼 루키 '우뚝'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최종합계 23언더파 265타
역대 72홀 최소 타수 타이기록 타이틀 방어 성공

2020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슈퍼 루키'가 등장했다. 신인 유해란(19·사진)이 역대 72홀 최소 타수 타이기록으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유해란은 2일 제주도 제주시 세인트포 골프&리조트(파72·6395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8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23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유해란은 2위 이정은(24·20언더파 268타)을 3타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억 6000만원이다.

23언더파 265타는 KLPGA 투어 72홀 최소 스트로크 우승 타이기록이다. 유해란은 2013년 MBN·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 23언더파 265타로 우승한 김하늘(23)과 나란히 72홀 최소타 우승 타이기록 보유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신인상을 받은 이정은이 한때 2타 차로 뒤쫓기도 했지만, 유해란은 신인답지 않은 노련함으로 다시 격차를 벌렸다.

유해란은 신인으로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는 이색 기록도 남겼다.

유해란은 지난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 초청 선수로 참가했다가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대회는 기상 사정으로 36홀 대회로 축소돼 유해란이 행운의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유해란은 작년의 우승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그는 1~4라운드 내내 선두를 유지하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신인이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4번째다.

1995·1996년 한국여자오픈을 제패한 김미현, 1995·1996년 서울여자오픈에서 연속 우승한 박세리, 2003·2004년 한국여자오픈을 2연패 한 송보배를 이어 유해란이 '슈퍼 루키' 계보를 이었다.

단, 김미현, 박세리, 송보배가 아마추어 신분으로 우승한 다음 해에 프로 데뷔해 우승한 것과 달리, 유해란은 작년에도 프로 신분이었다.

유해란은 지난해 KLPGA에 2부 드림투어에서 뛰다가 하반기에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를 시작으로 본격 KLPGA 투어 대회에 출전했다.

이번 우승으로 유해란은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부상했다. 유해란의 신인상 포인트는 785점에서 1055점으로 올라 이 부문 2위 조혜림의 692점과 크게 격차를 벌리게 됐다.

유해란은 "이 대회에 나오기 전부터 편하게 즐기면서 플레이하자고 생각했는데, 좋게 마무리해서 기쁘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나온 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드물지만 해내서 다행이고, 루키로서 이렇게 한 것도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NC 구창모·kt 로하스, 전반기 빛낸 별

프로야구 리그 절반가량 소화
구창모 9승·평균자책점 1.55
로하스 65경기 만에 100안타

코로나19 위협 속에서 시작한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가 일정의 49.9%를 소화했다.

올해는 올스타전을 열지 않아, 전·후반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KBO는 720경기 중 350경기를 치른 8월 1일까지를 '전반기'로 구분했다.

역대 가장 늦은 5월 5일에 개막하고, 7월 26일에야 관중의 입장을 허용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은 시즌이지만, 전반기에도 그라운드를 빛내는 기록이 나왔다.

마운드 위에서 가장 돋보인 투수는 NC 다이노스 영건 구창모였다.

구창모는 13경기에 등판해 9승 평균자책점 1.55로 활약했다. 평균자책점은 단연1위다. 다승도 공동 3위를 달리고, 삼진 99개를 잡아 이 부문 2위에 올랐다. 구창모는 개막 첫 달인 5월에 이달의 선수에 뽑히기도 했다.

타석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는 멜로하스 주니어(kt wiz)다.

로하스는 올 시즌 65경기 만에 100안타를 채우며 2009년 박용택(LG), 2016년 김문호(롯데)와 함께 역대 2번째 최소경기 100안타 달성의 주인공이 됐다.

5월 23일과 7월 21일 열린 LG와의 경기에서는 역대 3, 4번째 좌우 연타석 홈런을 연달아 기록했다.

로하스는 홈런(26개), 타점(68개), 안타(110개), 출루율(0.446), 장타율(0.760)등 5개 부문에서 전반기 1위에 올랐다. 타율(0.389), 득점(65개)도 2위에 올라있다. 연합뉴스

제주Utd, 첫 홈 유관중 경기서 '무승부'

전남과 1-1로 승부 못가려
승점 21로 리그 3위 수성

동점골 터뜨린 후 세리머니 하고 있는 임동혁.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유관중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제주는 지난 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하나원큐 K리그2 2020 13라운드 홈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제주는 전반 13분 박찬용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6분 임동혁의 동점골로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이날 무승부로 제주는 승점 21점으로 리그 3위를 지켰다.

먼저 골문을 노크한 쪽은 제주였다. 전반 7분 김영욱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임동혁이 가슴 트래핑 후 재빠른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박준혁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최근 중앙수비수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중용되고 있는 임동혁은 압도적인 제공권(190㎝)으로 전남 수비의 집중력을 시험했다.

실점 위기를 넘긴 전남은 전반 13분 선제골로 응답했다. 왼쪽 측면 프리킥 찬스에서 키커로 나선 임창균이 올려준 볼을 박찬용이 헤더로 제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지속적으로 추격골 사냥에 나선 제주는 후반 6분 안현범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임동혁이 문전 앞에서 가볍게 마무리하며 동점골을 뽑는데 성공했다.

이후 양팀의 막판 공세가 이어졌지만 더이상 골 소식은 없었고 결국 이날 경기는 1-1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남기일 감독은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아쉬운 무승부이지만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선수들도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아스널 FA컵 우승… 오바메양 멀티골 '원맨쇼'

3년 만에 챔피언 자리 복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이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결승에서 피에르-에므리크 오바메양(사진 왼쪽)의 멀티 골을 앞세워 첼시를 물리치고 통산 14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아스널은 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FA컵 결승전에서 혼자서 2골을 터트린 오바메양의 원맨쇼를 앞세워 후반 중반 퇴장으로 10명이 싸운 첼시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역대 FA컵 최다 우승팀인 아스널은 2016-2017시즌 대회 이후 3년 만에 챔피언 자리에 복귀하며 통산 우승 횟수를 14차례로 늘렸다.

더불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위로 밀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클럽 대항전 출전권 확보에 실패하는 듯했던 아스널은 FA컵 우승으로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다.

FA컵에서 아스널이 우승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권 배분도 확정됐다.

정규리그 5위 팀인 레스터시티가 유로파리그 본선에 진출하게 됐고, 6위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2차 예선부터 치르게 됐다.

유로파리그 2차 예선은 현지 시각으로 9월 17일 단판 승부로 펼쳐진다. 2차 예선 대진 추첨은 오는 31일 열린다.

아스널의 '특급 골잡이' 오바메양의 활약이 돋보인 경기였다.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결승전에서 선제골은 첼시의 몫이었다. 첼시는 전반 5분 만에 올리비에 지루가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살짝 내준 패스를 크리스티안 풀리시치가 골 지역 정면 부근에서 오른발 슛으로 골 맛을 보며 앞서갔다. 반격에 나선 아스널은 전반 25분 니콜라 페페의 중거리 포로 첼시의 골문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랐다.

결국 아스널은 전반 26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으로 침투하던 오바메양이 첼시의 수비수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의 반칙으로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따냈다. 페널티킥 키커로 직접 나선 오바메양은 전반 28분 동점골을 꽂았고, 아스널은 승부의 균형을 맞추고 전반을 마무리했다.

전반을 1-1로 끝낸 아스널은 후반 22분 역전 결승 골이 터졌고, 주인공은 동점 골을 터트린 오바메양이었다.

페페의 패스를 받은 오바메양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첼시 수비수를 개인기로 따돌린 뒤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는 재치 있는 왼발 슛으로 역전 결승 골을 꽂았다.

맨체스터 시티와 준결승전에서도 2골을 터트려 아스널의 결승행을 이끈 오바메양의 FA컵 2경기 연속 멀티 골이었다.

아스널은 10명이 싸운 첼시의 막판 공세를 막아내며 2-1 승리를 확정하고 14번째 FA컵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앙코르 20주년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아생여정(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기막힌 유산(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그놈이 그놈이다(재)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찬란한 내 인생(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결혼계약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엄마가 바람났다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특집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9:30 페파 피그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4:40 레이디버그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0 레이디버그 16:10 뽀롱뽀롱 뽀로로 17:00 EBS 뉴스 19:00 형사 가제트 19:45 자이언트 펭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4:30 보물섬 15:20 콘텐츠 안테나(재) 16:00 도올학당 수다승철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동물의 왕국	13: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영화가 좋다(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6:50 퀴즈 위의 아이돌(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동해수호대 12:50 뽀뽀뽀 친구친구 13: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재) 16:00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스페셜 17:00 5 MBC 뉴스 17:2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클릭! NOW 제주(재)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 90.9㎒**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채선아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스페셜 20:30 기막힌 유산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스페셜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위험한 약속 20:30 퀴즈 위의 아이돌 21:30 그놈이 그놈이다 1부 22:10 그놈이 그놈이다 2부 22:40 개는 훌륭하다 1부 23:15 개는 훌륭하다 2부	18:20 생방송 오늘 저녁 19:20 찬란한 내 인생 19:55 MBC 뉴스데스크 1부 20:50 MBC 뉴스데스크 2부 21:30 아무튼 출근 1부 22:10 아무튼 출근 2부 23:05 백파더 확장판 1부 24:00 백파더 확장판 2부	18: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19:00 네모세모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1부 21:30 생활의 달인 2부 22:00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 1부 22:40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 2부 23:10 동상이몽2 너는내운명 1부 23:55 동상이몽2 너는내운명 2부	**KCTV** 7:00 KCTV 뉴스 7:30 배워봅서 관광중국어 8:00 취미로 먹고 산다 9:00 KCTV 뉴스 13:10 이슈토크 팡 15:00 KCTV 뉴스 17:00 KCTV 뉴스 17:30 길용우의 영화산책 18:30 다문화코믹드라마 공무원 나대기 20:00 KCTV 다큐스페셜 21:0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 서귀포시 FM 105.9㎒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3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조급함은 마음의 병이 될 수 있으니 여유와 느긋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자. 48년 가족 또는 부부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늦은 귀가 금물. 60년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되고 해결되니 대인관계를 잘 활용하라. 72년 몸이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지니 도움을 받아야 한다. 84년 일석이조의 기쁨이 있다.

42년 주체성이 강하고 적극적이지만 마무리가 약하다. 최선을 다하라. 54년 현실에 불평이 있어도 적응하라. 인내가 필요하다. 66년 혼자서는 해결이 안되니 상의하라. 78년 전문직이나 자격증을 갖고 하는 업 길. 90년 이웃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은 나의 배려에서 우선한다.

37년 기분이 좋다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 실수 연발하거나 재물지출이 오게 된다. 49년 자신을 내세우는 것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61년 모임이 있으면 차는 집에 두고 가라. 73년 이성으로 갈등한다. 득보다 실이 많으니 약속을 보류하라. 85년 취업이나 선택의 갈등이 있다.

43년 문서관련 손재수가 예견되니 보증주의. 계약은 차후로 연기하라. 55년 주변 또는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니 먼저 나서지 마라. 67년 일이 호전되고 안정이 되니 본연의 일에 충실하라. 79년 대인관계를 잘 유지 관리하라. 미래의 정보가 그들을 통해 온다. 91년 분실이나 물건을 두고 오니 잘 챙겨야 한다.

38년 신경이 예민해지고 답답할 땐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 50년 돈이 나가거나 손재수가 있다.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용돈을 드려라. 62년 업무나 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격으로 간섭하는 이가 있으니 겸손하게 대응하라. 74년 찬스가 오면 포착하라. 86년 취업이나 하는 일에 기쁨이 있다.

44년 지출이 생기고 금전문제로 의견차이가 생기니 욕심이 크면 불리. 56년 목적을 두고 일을 진행하면 이익이 생긴다. 68년 매출이 증가되고 자영업에서 호조. 80년 윗사람이나 부모와 의견 충돌이 있으니, 겸손함으로 일단은 수용하는 자세 필요. 92년 재물에 애착이나 이해득실은 서먹서먹한 거리를 만들게 된다.

39년 벗과 동료의 만남이 새롭다. 51년 사람을 포용하는 너그러움이 존경에 대상이 되니 여유있는 웃음이 좋은 날. 63년 하는 일에 결과가 있고 재물운이 가득하니 참으로 기쁘다. 75년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일이 있다면 풀려나가니 계획을 잘 세워라. 87년 취업이나 중매자가 방문 또는 연락이 온다.

45년 과도한 자신감이 갈등을 낳기도 하니 너무 튀는 행동은 삼가라. 57년 자녀진로에 관한 소식 또는 문서와 관계된 소식을 접하게 된다. 69년 시작은 좋으나 마무리에 약하니 주어진 일을 잘 마무리 해야 한다. 81년 충고도 나에 대한 애정이다. 생각이 많은 날. 93년 모든 일은 나눌수록 나에게는 힘이 된다.

40년 인생무상의 회의감은 또 다른 사치로 극복의 대상이다. 52년 애정관계로 망신수가 생기니 남녀관계는 신중함과 냉철한 판단 필요. 64년 작심삼일의 모순을 깨려는 의지가 필요. 과욕은 망신을 동반한다. 76년 할 일이 많아지고 피곤이 쌓이니 휴식을 생각하라. 88년 외출이나 모임에서 대인관계 자중하라.

46년 뒤를 돌아보면 남에게 추월되니 잡념을 버리고 지속적 노력. 58년 의기투합하고 협력할 일이 생기면 이익이 있다. 70년 정도를 지켜 나가면 명예나 부가 따르고 주위로부터 인정받는다. 82년 방향이 결정되면 그대로 추진할 것. 변동은 불리. 94년 마음의 풍요로운 여유도 연습이 필요하다.

41년 화목이 필요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하면 신뢰를 얻는다. 53년 신용에 이상이 오니, 맡겨진 일은 책임완수를 다하도록 노력하라. 65년 소개 또는 중매가 들어와도 반갑지 않다. 배반 또는 배신수가 있으니 조심. 77년 새로운 계획이 오니 주위사람과 상의하여 길을 모색하라. 89년 하는 일이 지체됨이 있다.

47년 무리수가 오니 확장이나 이전은 보류하라. 59년 자녀일로 약속이 있거나 상담 연락이 온다. 71년 활동과 분주함이 있다. 최선을 다하라. 결과가 함께 있다. 83년 자기중심적인 행동은 상대를 달아나게 하니 배려하라. 95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 착실히 하나씩 해결하라.